

4+1 배격... 패트법안 연내 처리 물건너 가나

민주당 석패율제 거부 후
특별 접촉 없이 냉기류
檢 개혁·민생법 先 처리 제안
야당 협의체, 제안 일축



與 "검찰 개혁·민생법 먼저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선거법 줄다리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최근 일주일간 석패율제를 놓고 대립하며 '갑곶 싸움' 비판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이후 특별한 접촉 없이 냉기류를 이어갔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을 견인해 온 '4+1' 대오가 자중지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당리당락에 매몰돼 스스로 내세운 대의를 저버렸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3+1'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에 대한 거부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개혁 초심을 강조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합의가 가능한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서도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며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당내에선 기록권 보호 우려 등 반개혁적 요소가 이유로 석패율 반대 입장을 세웠지만, 현재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4+1' 협의체의 동력없이 여당 단독으로 향후 개혁 입법 및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최소한 수준에서 석패율

을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 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극적인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어 내부로부터 전략부재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1'의 다른 야당 구성체들은 민주당이 당의 이익에 매몰돼 개혁 의지를 포기 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전향적 자세 변화를 압박했다.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제안도 일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는

4당 대표의 최종안"이라며 "민주당이 결단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화상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이다. 전향적 소인배 정치다. 민주당은 시간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도 대규모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회용 걸레'라고 비판을 퍼부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응수하고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1+4'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장병완, 경전선 예타 통과 '숨은 공신'

예타제도 개선·시간단축 장점 어필 등 전방위 활약

광주-전남지역 속원사업인 총사업비 1조 7569억원 규모의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데는 장병완 의원(동남갑)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전 결과가 나와 사업 시행이 현실화 됐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여야정협의회 회의에서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경제성분석(B/C) 0.85, 종합평가(AHP)가 0.489로 안타깝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시행된 예타 결과를 정밀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항목이 과소 반영되는 문제점을 짚타, 올해 초에 경제성 비중을 축소하고 균형발전 비중을 늘리는 예타조사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정지권의 손 꼽히는 재정·경제통인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예타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경제성분석(B/C) 0.85, 종합평가(AHP)가 0.489로 안타깝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시행된 예타 결과를 정밀분석,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항목이 과소 반영되는 문제점을 짚타, 올해 초에 경제성 비중을 축소하고 균형발전 비중을 늘리는 예타조사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장 의원은 또 '4+1협의체'에서 대안신당 대표로 참여, 지난 12월10일 통과된 2020년 예산안에 "예타 통과 즉시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경전선 사업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1년을 더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설계를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결국 새로운 예타 조사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경제성 분석 0.88, 종합평가 0.653으로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

'새로운보수당' 다음달 5일 창당

시·도당 이달내 창당...한국당과 통합 급물살 전망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변혁) 의원들이 중심이 된 신당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 5일 창당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신거법에 불만이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바른미래당도 변화가 있다"며 "새보수당은 그 주변 정치환경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한다"고 밝혔다.

새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창당 행사 시간은 오후 2시이다. 그는 이어 "각 지방시·도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보수당이 창당하면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유승민 의원은 "불과 4년 전 청와대가 총선관련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2년 형을 확정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며 "그 사건에 비해 지금 드러난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훨씬 더 취약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하 위원장은 "소위 '4+1'의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이

한국당, 법안 저지 사활... 보수통합 내년으로

공관위, 다음달 가동 전망...인적쇄신 논의도 물밑으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내년 총선과 직결된 인적쇄신 및 보수통합 작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이다. 총선거획안이 일부 '공천 룰'을 정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공천 칼자루'는 공관위원장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인적쇄신 작업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수통합 등을 고려하면 인적쇄신의 시간표를 마냥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당이 단행하는 인적쇄신의 속도와 방향성에 따라 보수통합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집회가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극우세력의 집회로 비치자, 새보수당 일각에서는 통합이든 연대든, 한국당과 손 잡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한때 급물살을 타는 듯한 보수통합 논의도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한국당 스스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남과 동시에 보수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임을 뜻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집중해야 하므로 집토끼를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한국당이 온몸으로 막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이달까지는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보수당과의 통합을 위한 물밑 조율은 거의 끝났고 양측의 신뢰가 쌓이고 있는 단계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면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최희용 "광주, 내년부터 경제민주화의 출발지"

서구를 출마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지역구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하는 독립 자본과 특권층에 맞서야 한다"며 "광주의 자부심을 경제, 미래, 문화산업, 현실, 물질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정치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가 내년부터는 경제 민주화의 출발지가 돼야 한다"며 "국가 정책이 독점 대기업과 특권층보다 빈곤층과 결식아동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최 전 대표는 세무사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예산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농 지** ▶ 광주 광산구 신창동 77-70 토지 : 2175㎡(657.9평) **감정가 12억6천1백5십만원 최저가 12억6천1백5십만원**
- 대 지** ▶ 광주 북구 중흥동 701-7 토지 : 235㎡(71.1평) **감정가 4억1천1백2십5만원 최저가 4억1천1백2십5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트** ▶ 광주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6차 41평 **감정가 4억1천1백만원, 최저가 4억1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